

미국 출장 성과 시정 접목... 미래 청사진 그린다

우범기 전주시장, CES 2024 참가·LA 한인회·LA한국관광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성장동력 마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최근 미국 출장 성과를 토대로 향후 기업 육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관광 분야의 육성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시장은 앞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7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우 시장은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분야의 세계 시장 진출과 해외 관광 마케팅 성과 등을 시정에 적극 접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주 100대 혁신 스타트업'을 양성해 지역기업의 CES 진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CES에 전주관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시는 드론축구 연관기업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기술혁신 및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육성 전략 마련 등을 위한 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시는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대륙별 프레젠테이션 개최, 대회 인프라 확보를 위한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준공 등 단계별 준비사항을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최근 미국 출장 성과를 토대로 향후 기업 육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관광 분야의 육성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다.

여기에 시는 한국관광공사 등과 글로벌네트워크를 강화해 상품개발, 팸투어 등을 추진하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이번 미국 출장 일정 중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드론축구 중주도시 대표 자격으로 참가해 각종 행사와 이벤

트를 지원하는 등 드론축구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그 결과 드론축구 경기용품과 규칙, 국내의 현황 등을 홍보하고, 박진감 넘치는 시범경기도 선보인 4일 간의 전시 기간 이를 취재한 BBC와 CNN, 로이터 등 글로벌 언론사와 국내외 굴지의 정·경계 인사 등을 포함해 자체 추산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드론축구

를 참관했다.

이어 우 시장은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시와 LA 한인회는 양국 청소년 대표단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세대 공감대 확산과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투자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LA 시청·시의회에서는 LA 실리콘비치의 운영 현황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청취하고, 양 도시에서 추진 중인 영화제와 스포츠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과 상호홍보를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미 서부지역은 물론 중남미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LA지사를 방문한 우 시장은 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과 현지인 마케팅 협력 및 홍보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전주 관광 활성화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결실과 경험이 민선 8기 강한 경제 전주 실현에 속도감을 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 육성과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차근차근 높여 전주의 미래 청사진을 확실히 준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편안한 설 명절 위해 적극 지원

공영주차장·실외 체육시설 무료 개방 등 추진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편안하게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연휴기간 전주시내 대부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 9일부터 대체공휴일인 12일 까지 나흘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전주동물원 부설주차장, 신시가지 6개 주차장 등 29개에 달한다.

전북대 구성문 노상 공영주차장과 공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등 새롭게 조성된 주차장까지 더해져 지난 추석보다 5개 더 늘었다.

한옥마을 1~3과 노상, 오거리 등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차장 5개를 제외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다.

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바로온'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이지콜'을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한다.

성묘객들을 위한 장사시설 실제 정비도 추진한다.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환경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성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화장시설인 승화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당일인 10일 하루로 휴무일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시민들이 명절 연휴를 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실외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대상 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 풋살장, 덕진체육공원 테니스장과 축구장, 완산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력공원, 고덕생활체육공원, 숲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 7개 시설이다.

/김옥기 기자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주 중화산동 가람학교에 10kg 짜리 백미 20포를 전달하고,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의회, 설 앞두고 가람학교서 따뜻한 정 나누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대안학교인 가람학교를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가람학교는 문화예술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대안학교이고 2020년 설립됐다.

이날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주 중화산동 가

람학교에 10kg 짜리 백미 20포를 전달하고,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 "설날을 맞아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만나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가 있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예비도시 승인기념 26일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지휘자 성기선)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예비도시 승인기념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265회 정기 연주회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에는 롯데시네마의 '윌리엄 텔 서곡'을 시작으로 슈트라우스의 '박쥐'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등 유명한 아리아,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를 조성 중인 전주시의 정책에 부응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연주되는 첫 곡은 롯데시네마의 마지막 오페라인 '윌리엄 텔 서곡'으로, 이 희곡은 아들의 머리에 놓인 사과를 석공으로 명중시켰다는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어 두 번째 곡은 뉴욕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와 LA필하모닉 공연 등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를 어우르는 활발한 연주 활동을 선보여 온 소프라노 박소영이 협연자로 나서 감동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선사한다.

끝으로 파남레 무대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선보이는 차이



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화적인 분위기, 힘찬 멜로디를 통해 환상적인 음악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공장은 "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로 힘찬 새해를 출발하시길 바란다. 전주가 '문화예술로 물들고 명실상부한 문화산업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장권은 1만원(1층)과 7000원(2층)으로, 나루탈처에서 예매할 수 있다. 학생과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김옥기 기자

청년 취업 2000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2월 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올해 청년 10명 선발 예정

전주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2024년 청년 취업 2000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 사업으로, 시는 오는 2월 6일까지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청년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공개 모집과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매월 70만 원의 채용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3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전주지역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정책과(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흥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영역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